

# 새해 군민의 삶 향상 '올인'

### 임실군 시무식... '가경취숙(駕輕就熟)' 기해년 힘찬 출발 알리

임실군이 '가경취숙(駕輕就熟)'을 내세우며 2019년 기해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군은 2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갖고, 2019년의 성공적인 군정운영을 다짐하며 당찬 시작을 알렸다.



임실군이 시무식에서 '가경취숙(駕輕就熟)'을 내세우며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심 민 군수는 "올해는 민선 7기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중요한 한 해로서 민선 6기에 다져놓은 분야별 성과를 토대로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건설에 매진하자"며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군수는 "경쾌한 수레를 타고 낮은 길을 달린다"는 가경취숙의 자세로 더 단련된 익숙함으로 풍성한 수확을 이루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데 전 공직자가 하나된 마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경쟁력강화와 일자리창출 ▲육정호 권역 관광특구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지 실현을 위한 생활복지 체계 구축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주요 시책을 강조하며, 행정력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심 민 군수는 시무식에 앞서 박진두 부군수, 국실과원소장들과 함께 성수면 소총사를 찾아 항일독립운동을 위해 떠나신 28의사에게 참배하고 임실군과 군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했다.

## '천년의 역사 속에서 정의로운 순창 만들 터'... 순창군 시무식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예산 5천억 달성, 관광객 5백만명 유치, 인구 4만명 달성이라는 3대 비전과 농촌, 관광, 문화, 교육, 복지, 경제 등 6대 역점분야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순창군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가 2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새해 군정비전을 제시했다. 황 군수는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시무식에서 "기해년(己亥年)은 '시시각각 살피고 기미마다 살펴라'는 뜻인 '유시유기(惟時惟幾)'의 뜻을 새겨 한순간이라도 삼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을 느끼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순창군이 2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 남원시, 대표사이트 3년 연속 웹 접근성 인증 획득

남원시는 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포함한 8개 사이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도로, 전문가 심사와 장애인 심사 2개 분야에서 남원시 HTML5 기반으로 구축된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되고 있으며, 웹 접근성 방지하기 위한 유지를 위해 관리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 "친절하고 살맛나는 천년남원 조성"

### 이환주 남원시장 신년 다짐

2일 이환주 남원시장은 2층 회의실에서 2019년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남원시의 새해 시정목표를 '친절하고 살맛나는 천년남원'으로 정하였으며, 평이근민(平易近民:편안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다가간다)의 자세로 시민 섬김?공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시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민선7기는 남원발전의 큰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올해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남원시대로 힘차게 발돋움하기 위해 거침없이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립공공의료대학 유치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공약한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 문화관광, 교육복지 등 남원의 현안사업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고 친절·소통행정으로 시민이 바라는, 시민이 중심인 천년남원으로 다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부권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동부권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 산업화에서는 시내권 관광과 산악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관광발전 투트랙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기를 맞아 관광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것과 관광부원 일대에 거러예술장터 및 요천변 경관조명을 만드는 남원 전통가를 계획 중에 있으며, 합파우유원지에는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으로 시립미술관, 소리체험관, 도예촌과 함께 전통과 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시장은 올 시정방향에 대해 핵심키워드는 기업유치 기반 마련 및 신성장 동력산업 추진이라며, 이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및 화장품산업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여 양질의 기업유치와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가고, 동

부권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동부권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 산업화에서는 시내권 관광과 산악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관광발전 투트랙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기를 맞아 관광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것과 관광부원 일대에 거러예술장터 및 요천변 경관조명을 만드는 남원 전통가를 계획 중에 있으며, 합파우유원지에는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으로 시립미술관, 소리체험관, 도예촌과 함께 전통과 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임실군, 효심복지 취약계층 맞춤형 전국 2위

### 내내 유일 국무총리 표창 수상

임실군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국가적 인정을 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며,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1500만원을 받게 됐다. 우수지자체 37개 중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임실군이 선정됐으며, 2개 지자체에 주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에 대한 연계지원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간기관 5개소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을 갖고 읍·면 행정복지협의체와의 지속적 협력을 강화했다.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2018년 전북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등을 받은 바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시 민원과 행안부·국토부

### 최우수 기관 표창 받아

남원시가 지난해 매우 친절하고 민원시 민원기에 앞장선 결과 민원과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다.

행안부의 수상은 2018년도 민원서비스 향상은 물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이용률 실적이 2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도로 민원인이 시청,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신분을 확인 후 서명과 용도를 기재하면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육천인재숙, 명문대 합격 신화

### 순창군 육천인재숙이 올해도 명문대

합격의 신화를 이어갔다. 군에 따르면 2019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 서울대1명(수의예), 연세대1명(사회복지), 고려대3명(경영, 지리교육, 화성공), 대구교대, 한양대, 중앙대, 홍익대 등 31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지난해에도 서울대 의예과 등 3명의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으며 매년 의과대학(의, 치, 한의), 사관학교 합격생도 배출해 내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지역 전체적으로는 군민들이 교육문제로 인해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을 막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크게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 군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육천인재숙에 입학하기 위해 순창지역으로 전입하고 있는 인구도 상당수 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드물게 순창의 대학 진학 실적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면서 "대도시 못지않은 교육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교육1번지 순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